

## 멕시코

# Laguna Verde原電 運開前査察을 IAEA에 要請

Laguna Verde- 1號 플랜트는 建設이 完了되었으나 9월에 있을 IAEA 調査團의 査察이 끝날 때까지는 稼動되지 않을 것이다.

이 674.5MW의 GE社 BWR의 建設과 試驗은 이미 지난 7월 13日 完了되었으나 7月初에 Miguel(De La Madrid)멕시코大統領은 IAEA 調査團에 의한 訓練 및 運轉節次에 대한 評價가 끝날 때까지는 이 플랜트에 대한 使用許可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大統領官邸代辯人은 이와 같은 措置를 取하게 된것은 政治的인 理由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IAEA의 査察이 이 플랜트의 安全性에 대해 憂慮를 나타내고 있는 國民들의 不安을 鎮靜시킬수 있는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IAEA本部의 한 代辯人은 멕시코가 이 플랜트의 安全運轉에 대한 査察을 9月中旬에 實施해 줄것을 要請했다고 말했다. 10~12名으로 構成된 IAEA 調査團이 멕시코沿岸의 Veracruz市

北方 40마일에 位置한 이 플랜트를 約3週日間 踏査하여 플랜트의 性能, 運轉守則, 品質管理에 關한 모든 面을 檢討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이번의 査察은 運轉節次的 品質를 評價하는데 必要한 細部的인 設計事項을 除하고는 建設工事의 品質을 一般的인 方法으로는 檢討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代辯人은 「이번 일은 純全히 諮問의 性格을 띤 것으로 우리는 規制者의 立場이 아니라 이 플랜트가 얼마나 잘 稼動될 것인가에 대해 獨自의인 意見을 傳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aguna Verde 플랜트 두 유니트의 現在 價格은 利子包含 35億弗이며 지난 3月初의 入札價格인 23億弗보다 훨씬 커졌다고 멕시코의 한 代辯人이 말했다. 資金問題로 現在 建設工事가 50% 進陟돼 있는 2號機는 工事가 遲延되고 있으나 1990年の 燃料裝填目標達成은 아직 可望이 있다.

## 유고

# Croatia共和國에서 原電建設 推進中

유고의 行政府인 聯邦執行委員會(FEC)는 原子力플랜트 建設을 2000년까지 留保시키고 이를 國民投票에 回附시킬 法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法律家들은 이러한 留保措置가 採擇되는 경우 이는 準自治下의 各 共和國(一部 共和國들은 原子力 選好)에서 支持하고 있는 原子力프로

젝트를 禁止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問題를 놓고 論爭을 벌이고 있다. 한편 計劃中인 次期の Croatia共和國의 Prevlaka 플랜트 原子爐 入札書에 대한 評價作業은 計劃대로 現在 進行中이다.

政府消息通에 의하면 FEC는 「1986~2000年

의 長期에너지開發計劃」을 위한 最近의 計劃案에서 매우 保守的인 方法으로 2000年과 2010年에서의 電力需要를 想定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2000年の 需要想定値는 1,080億kWh 인데 이는 1980年當時의 豫想値의 半밖에 안된다. 聯邦에너지/工業委員會議長인 Ocvirk 씨는 이 새로운 計劃案은 聯邦議會에서 論難이 豫想되며 2000년까지 建設될 發電設備은 매우 다른 樣相을 띠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 原則的인 變化는 原子力플랜트가 없다는 것이다.

精通한 消息通에 의하면 聯邦議會內的 自治委員會는 4基의 原子力플랜트 建設을 取消하기로 한 Slovenia共和國 議會의 7月 20日 決議案에 대한 討議는 2000年 以後의 計劃에 대해서만 論議하기로 結論이 내려졌으므로 2000년까지 原子力플랜트의 新規建設은 留保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聯邦議會內的 自治委員會는 FEC에 대해 이 Slovenia共和國 決議案에 대한 對處方案과 이에 대한 修正案을 11月 30日까지 提出하도록 指示하였다.

유고에서는 聯邦政府의 社會計劃은 단지 計劃樹立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不過하며 現行憲法에 따르면 聯邦政府는 各共和國의 에너지資源 및 施設 또는 에너지政策에 直接的으로 干涉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聯邦政府의 새로운 案이 原子力플랜트建設에 대해 어느 程度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意見이 紛紛하다. 原子力計劃立案者中的 한사람은 聯邦政府는 단지 將來需要를 想定하고 이에 대한 政策을 勸獎하고 이의 實行을 돕는 것이지, 어떠한 플랜트를 어디에 建設할 것인가를 獨斷的으로 指示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lovenia共和國이 原子力플랜트建設을 위한 合作프로젝트에서 離脫한다면 Croatia共和國이 單獨으로 Prevlaka나 또는 다른 地點에 原子力플랜트 1基를 建設할 計劃을 推進할 것이며 플랜트容量만은 300 MW程度로 縮小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Croatia共和國의 에너지開發計劃은 9月中 이

共和國議會에서 投票에 回附될 豫定이다. Croatia共和國首相은 強力한 原子力支持者이고 Prevlaka에서의 立地選定作業도 꾸준히 進行되고 있다고 하며 이 플랜트와 核燃料週期에 대한 入札書는 計劃대로 檢討中이다. 이 Croatia共和國은 유고全國의 總電力消費量의 18.9%를, 總에너지使用量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나라의 總 에너지資源의 7.3%를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 地域熱供給에 關心高潮

中小型原子爐의 설계, 안전성, 운전, 경제성 등에 焦點을 맞춘 「第1回 中小型原子爐國際세미나」가 스위스의 로잔느市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10개국에서 155명이 참가하여 中小型爐의 개념·형태, 플랜트 設計·건설·운전, 안전성 및 認許可, 市場展望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이중 IAEA에서 참가한 엘·컨스턴치노프氏は IAEA에 가입한 몇개 나라는 10만~50만kW 범위의 中小型原子爐의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投資上의 리스크나 配電網의 規模에서 開發途上國의 關心이 높다고 말했다.

또 IAEA는 開發途上國에서 이 爐의 導入을 도모하기 위해 中小型爐프로젝트에 着手, 현재 23건의 設計概念資料를 작성해 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계속해서 設計概念은 크게 나누어 ①大型爐設計의 규모축소 및 동 기술의 이용(CANDU爐 등), ②大型爐의 용량축소 및 신기술의 응용(小型BWR), ③新規開發(PIUS爐)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